

### 민주 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처리 재확인

##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협의... 9부능선 확보”

####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 다해 쟁길 것”

취임 후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해결을 약속했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출)이 이날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함께 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국가예산 및 지역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 통과와 9부 능선이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이고 이후는 절차적 문제인데, (전북)의원 전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찾아가 합의했다. 11월 중하순에 열릴 회의에서 통과를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처음에 법안 발의를 할 때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을 공동 발의자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우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국정감사와 2023년 국비 예산 확보 활동 방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리 전북특별자치도에 공동 발의를 해줬다”라며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고 여당도 특별히 현재 반대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날짜만 잡히면 여야 한 명 한 명 의원들까지 다 저희들이 역할을 나눠서 찾아가고 설득하고 부탁하는 등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병도 위원장(익산출)과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은 982건에 총 8조3000억여원이 반영이 됐다”고 설명한 뒤 “저희들

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88건, 약 3111억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파견된 도 국가예산팀 9명의 직원과 도내 시군 예산담당자들이 상환실을 꾸리고 있다고 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3000억원 이상 증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다행인 건 제가 조정소위원회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와 함께 정치력을 발휘해 전북도가 목표하는 바를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고 역량을 저희들이 발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라북도 예산은 한병도 의원을 중심으로 챙기겠지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별도로 챙기고 협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당파적 예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지역 예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대화 잘 되고 있다. 직접 만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 도의회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 “정무라인 역할 중요”

#### 역할 부재 질타 잇따라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9일 전북도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의 정무라인이 무너졌다”며 역할 부재를 질타했다.

먼저, 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출)은 이날 전북개발공사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의회와 도지사 간 갈등을 놓고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 역할 부재를 지적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연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지사의 인사정책 기준과 원칙이 없음으로 인한 불통을 지적하며, “의회의 소통, 협치를 위한 정무라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년이 의원(전주)은 김광수 정무수석에게 “도의화와 도청의 관계가 파행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전개공 사장 관련 대책회의의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물자 김 정무수석은 “대단히 유감이다. 임명권자의 권한까지 넘어설 수 없는 게 인사청문회의 한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고 역할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피폭이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자진 사퇴 쪽으로 설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그 책임도 임명권자가 지는 것”이라고 사실상 임명 철회 불가 의사를 밝혔다.

강태창 의원(군산)은 전북개발공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및 임명 강행이 도의회 패싱은 물론 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도지사에게 손소리를 필요하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관련한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현장의정 활동

#### 홀로그램콘텐츠 성과보고회 · 청년시청 등 찾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가 제247회 임시회 중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 성과보고회 및 청년시청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했다.

9일 기획행정위원회들은 먼저 웨스턴 라이프호텔에서 진행된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 및 XR소재부품장비개발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찾아 홀로그램·XR 종합성과 및 호러페스티벌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지원기업 사례발표를 살펴봤다.

이날 펼쳐진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 센터 성과보고회는 △홀로그램·XR 지원과제 성과물 전시 △홀로그램·

XR 지원과제 종합성과 및 기업 사례 발표 △홀로그램 리빙랩 지원과제 시민평가 및 XR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지원과제 최종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문을 연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홀로그램 산업 지원기관으로 홀로그램 관련 기술과 장비, 리빙랩 운영, 홀로그램 제품의 품질 인증·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기획위는 중앙동에 마련될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을 방문하고 준공 마무리 사항들을 점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무주군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 구성

#### 위촉식 열고 첫 회의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9일 제9대무주군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자문위원회는 오는 11월 16일부터 30일간 실시될 제28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운영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청취했다.

이해양 의장은 “이번 회의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자문을 얻고자 마련되었다.”며 “위



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무주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책연구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임기 2년 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 수집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의회, 4대 폭력 예방 · 청렴교육 실시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9일 진안 신약초타운 인삼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폭력 예방 교육 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의식 함양과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한국요양성평등진흥원 최선광 강사의 강의에 이어 정승호 강사의 부패행위 및 청렴 문화의 이해를 통한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규 의장은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군민의 기대



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맞게 4대 폭력 예방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이 실시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조직 풍토, 성의식 조성에 온 힘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 /진안=우태민기자

